

신안 압해동초, 전남 1호 '학교돌봄터' 운영

시설 리모델링비 3천만원 투입되는 정책사업 학교 돌봄 운영과 달리 지자체 주체 되어 운영 신안교육청·학교·신안군청의 3자 업무협약 센터장 1명·돌봄사 2명채용, 13시~19시까지

신안군의 관문 압해대교의 끝자락에 소재한 압해동초등학교에서는 올해 3월 2일부터 전남 1호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손잡고,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고 50%(도교육청 25%+ 도청 25%), 지자체 50%의 운영비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시설 리모델링비 3천만원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으로 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과는 달리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다.

압해동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돌봄터'는 신안군청에서 직영하는 돌봄교실로 2018년 별도로 신축한 133㎡ 규모의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무료 대여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6일 신안교육지원청-학교-신안군청의 3자 업무협약, 학교-군청의 시설사용 관련 협약을 거쳐 지난달 3월 28일 개소식을 마쳤다.

정식 명칭인 '압해동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군청에서 파견한 센터장 1명 외 돌봄사 2명을 채용하여 13시부터 19시까지 기본으로 운영하고, 군청 직원, 조부모 돌봄 등의 가정

이 많은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말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압해동초등학교는 2021학년도 말 교육 3주체 토론회 논의과정을 거쳐 이미 2022학년도부터 학부모가 주축이 된 마을공동체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마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된 '학교돌봄터' 운영으로 인해 마을학교 운영도 더욱 힘을 얻어 활기를 띠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1·2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친 3~6학년 학생들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합창&피아노, 리사이클링, 그림책수업, 독서논술, 갯벌수업, 수영 및 체육활동, 교과보충 학습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이 규칙을 정해 운영하는 간이매점, 저녁 간식 및 간단한 석식도 일부 제공되고 있어 저녁 귀가가 늦은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상·하급생이 함께하고 있는 돌봄터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협력 활동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배워 나가는 참살의 교육 공간이기도 하며, 가끔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모교를 찾은 중학생들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올해 전학을 온 2학년 김00 학생의 어머니인 본교 교사는 "아이가 돌봄교실이 너무 재미있으며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실랑이하다 저만 먼저 가고 인근 학교에 근무하는 남편이 나중에 데려와요"라며, "아이가 좋아하니 여유시간이 생겨 오히려 재가 더 좋아요"라고 말했다.

압해동초등학교 이봉선 교장은 "학부모로

구성된 마을학교 운영진들이 마을 방과후와 학교돌봄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보니, 돌봄교실 입구에 적힌 문구처럼 실제로 '엄마품처럼 따뜻한 돌봄교실'이 되고 있다"라며, "학교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음을 열어 마을과 협력하고 시설을 개방하면,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행복한 삶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전남의 2호, 3호 '학교돌봄터'가 탄생될 것이다. 아울러, 신안군의 사례가 전남의 다른 지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되어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학교돌봄터' 설치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안=이택주 기자



해남 계곡초, 엄마가 책 읽어 주는 교실 '북모닝' 운영 나서

해남 계곡초등학교 도서관에는 1~2학년 학생들이 용기종기 앉아 엄마가 책 읽어 주는 교실 '북모닝(Book morning)'을 지난 3월 20일부터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번주는 깃털이 없는 기러기 보르카를 함께 읽어보면서 어렵지만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북모닝(Boom morning) 활동은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의 아침독서교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한글이 서툰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1~2주에 한 권씩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

평소에 독서활동에 관심이 많은 이애현(6학년 김희은) 학부모가 본교 학생들을 위해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책을 읽어주고 있다. 이애현 학부모는 농산어촌유학가정으로 서울에서 방과후, 독서교실을 운영했던 Know-How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주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교육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대상

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진도예술영재교육원 예술마루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직속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 침해사고 및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 디지털 환경변화와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대비한 업무담당자의 역량 제고로, 단위 학교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안의 기본활동과 주요 상황별 보안관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이행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CCTV 보안관리 방안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진도=조상용 기자

나주교육청, 청렴실천 다짐 및 환경정화 활동 나서

전 직원 참여한 가운데, 나주시 경현유원지 일대 대상 실시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시 경현유원지 일대를 대상으로 청렴실천 다짐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상춘객이 많이 찾는 경현유원지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클린 나주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 해 우리 청 전 직원의 청렴 의지 홍보 및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다.

박윤자 교육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청렴 실천 운동 및 조직 내 청렴 마인드를 확산시켜 깨끗하고 공정한 나주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강진 읍천초, 전교생 참여 즐거운 생태 체험 실시해

강진 읍천초에서는 최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즐거운 생태 체험이 실시되었다. 우리 고장을 아름답게 둘러싸고 있는 보은산에서 벚꽃을 관찰하고, 봄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승마체험이 진행되었다.

먼저 오전에 실시된 숲 체험에서는 숲 체험 강사님과 함께 보은 산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 나무 사잇길을 걸으며 벚꽃이 한꺼번에 많이 피는 이유와 벚꽃과 개미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 잎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눈으로는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귀로는 개구리 소리, 새소리 들으며 봄을 오감으로 느껴본 시간이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